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인간개발연구원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BETTER PEOPLE BETTER WORLD



천만 서울시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CEO 시장

머릿글 서울대 수의대 교수 권오경

8월 프로그램

화제의 강연 교보생명보험(주) 회장 신창재

커버스토리 서울시 시장 이명박

나의 경영이야기 거벽엔지니어링(주) 사장 김영관

지자체특강 前 농림부 장관 허상만

발행인편지

세상을 보는 눈 (주)미라클커뮤니케이션 CEO 백승현

회원&연구원소식 / 남미문화투어 / 리더십이야기

조순칼럼

표지인물 이명박 서울시 시장

2005 August

8

동원제(주) [미메] 등록번호: 서울 라 09006 발행일: 2005년 8월 1일 발행인: 장민기 인간개발연구원(KHDI) 주소: 136-240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4 강남우체국 B/D 5층 T. 2203 3800(F) F. 2203 1974 www.khdi.or.kr 디자인: 디자인로드 www.cord2.com 인쇄: (주)동명인쇄 T. 492 8323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권오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



권오경 교수

1954년생 / 서울대 수의대 졸업 / 서울대 수의학 석사 / 日 오비히로대 축산학 석사 / 日 홋카이도대 수의학 박사 / 서울대 수의대 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 서울대 수의대 동물병원 원장 / 서울대 수의대 부학장

복 (伏)이 들어 있는 여름은 특히 견공들에게 수난기이다. '수 천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의 고유 먹거리인데 누가 뭐라 그래, 자기네들도 이상한 것을 먹으면서' 라고 땀흘리면서 맛있게 먹고 있는 한 무리의 한국인들이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명견으로 진돗개를 영국 켄넬클럽에 등록시키기 위해 3년 전에 몇 마리의 진돗개를 영국에 보냈으며, 최근 혈통을 인정받아 진돗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개'가 되었다. 이러한 뉴스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원산지인 진도에서 보양탕 음식점들을 보여주는 뉴스도 나왔다. 남들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개를 먹는 식습관만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병든 강아지를 안고 와서 꼭 살려달라고 하는 할머니, 강아지 입에 뽀뽀를 하고 '아이 귀여워라' 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친난만해하는 부부가 있다. 같이 살아가는 부부를 서로 반려자라고 하듯이 같이 살아가는 동물을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고 한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남편이 출근한 후에 혼자 있는 부인의 친구가 되어 주고, 퇴근해서 돌아오는 남편을 반갑게 맞이해서 피로로 굳어진 얼굴에 웃음을 띠게 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의 옆을 지켜 준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강아지의 눈을 보면 열렬히 바라라고 애원하는 눈동자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고, 변하지 않는 애정과 관심 어린 강아지의 눈동자는 순수한 신뢰의 눈빛이 어떤 것인지 새삼 느끼게 해준다.

반려동물과의 유대관계는 각종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고, 매사에 자신감과 적극성을 갖게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신체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향상시키고 배우자와의 사별과 같은 강력한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신체적 반응을 억제 또는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유익하고 안정적인 수 있는 이유는 반려동물의 주인에 대한 애정은 예측가능하고 비교적 불변하며, 그 관계가 약점이나 감정의 노출 또는 과도한 정서적 요구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줄 달린 음식을 먹다가 음식 덩어리만 넘어가고 줄은 이빨에 걸린 상태에서 꿀꺽꿀꺽 삼킬 때마다 팽팽한 줄이 혀 밑을 썰어 고통으로 어쩔 줄 몰라하는 강아지. 사람 같으면 손으로 잡아 꺼내 버리면 되는 것을 그것을 못해 고통받는 미물. 주위에는 우리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물들, 더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생명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회적인 욕구와 자아존중의 욕구를 넘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 생각된다. 서로 추구하는 목표는 다르겠지만 그 목표는 서로가 더불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바탕 위에 있을 것이다.

100년만의 무더위일 것이라는 올 여름철을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과 온 우주의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드시지 말고 식음유절(食飲有節)하시고, 자연과 동물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면서 즐거움과 웃음을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바란다. **人間**

8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프로그램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는 격변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도전을받고 있는 경영자와 지도자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연구하고 상호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눔으로써 인간적 이해와 친교를 도모하며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풀어 가는데 상호협동하는 길을 모색하는 지식·정보 교류와 친교의 광장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주례 조찬 강연회로서 과거의 기업 경영자 회원 중심에서 요즘에는 전현직 각료를 비롯한 한국 최고의 오피니언 리더 회원들도 함께 하는 지식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 知己의 리더십

1413회 8월 4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정빈 소설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에게는 남과 다른 자신만의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은 강한 의지, 통찰력, 책임감, 비전 등으로 이를 통틀어 리더십이라고 한다.

리더는 최종 결정자로서 간언과 비판을 잘 들어야 하고 정보의 균형을 이루어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하며, 문제해결사로서 문제를 헤쳐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창조적인 리더는 '갈 길과 할 일' 즉 '비전과 미션'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자신부터 변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국 한 조직에서 발휘되는 리더의 역량은 그 조직의 성장발전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업, 단체의 인간심성 및 자기개발 분야의 명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빈 작가를 초빙하여 한 시대를 풍미했던 리더들이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결단하고, 설득하며 시대를 이끌어 갔는지 실제 인물의 예화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의 저서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을 중심으로 知己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1980년 현대문학 추천 등단
-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 계몽사 어린이문학상 수상
- 1985년 당해 년도 최대의 베스트셀러 소설 <단(丹)> <저서> 성자들의 마음, 마음을 다스리는 법, 마음이 평

화로워지는 9가지 원리, 리더의 아침을 여는 책, 송어, 피천득 인생은 작은 인연들로 아름답다, 만화 논어(대만에서 번역 출판) 외

아시아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한국증권선물시장의 역할과 과제

1414회 8월 11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영탁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증권과 선물, 코스닥시장을 하나로 합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분산됐던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대형 거래소의 외형을 갖추고 아시아금융허브를 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거래소 통합 출범으로 상장사 수는 세계 7위,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시장이 되었다. 무엇보다 단일화된 시장 운영체계를 통해 전산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이용자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 기업 상장유치, 아시아 대표기업 합동 설명회(IR) 등 국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국거래소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아시아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효율성, 규제 감독시스템의 개선, 전문인력보강 등 각종 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국가간 거래소의 통합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글로벌화, 국제화로 가지 않으면 거래소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출발해 장관급인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을 거쳐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한 이영탁 이사장을 초빙하여 증권선물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금융허브를 위한 과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서울대 상과대 졸업
- 美 윌리엄스대 경제학 석사
-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 제7회 행정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장, 종합기획과장
- 재무부 증권국장, 국제금융국장
- 대통령비서실 재경비서관

•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 교육부 차관
•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 KTB네트워크 회장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상훈> 녹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저서> 시민을 위한 경제이야기, 지식경제를 위한 교육혁명, 미래진단법(역서) 외

동북아 경제, 신질서와 환율문제

1415회 8월 18일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정덕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가 세계경제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에 있어서도 '환율문제'가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빠른 지역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이룩해왔다. 또한 현재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에 있다. 특히 중국은 많은 문제와 일부 비관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 어떤 개도국보다 여러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정세를 논함에 있어 미국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위안화 절상 압력으로 중국은 지난달 10년간 달러당 8.28위안으로 유지해오던 위안화 환율을 2% 절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구미 국가들에게는 환영할 일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강세 통화 국가들에게는 당장 대외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30여 년간 경제 각료로서 활약해온 정덕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을 초빙하여 중국의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환율 문제가 동북아 경제 신질서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고려대 상학과 졸업
- 美 위스콘신대 경영학 석사
-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駐 영국대사관 재무관
- 재무부 경제협력, 국제금융국장
-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
- IMF협상 수석대표

• 뉴욕 외채협상 수석대표
• 재정경제부 차관
• 산업자원부 장관
• 서울대 국제금융연구센터 소장
• 중국 북경대 초빙교수
<상훈> 홍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저서> 한국의 경제정책 결정과정, 이제는 경제다-정덕구 교수 세계와의 대화, 거대 중국과의 대화 외

첨단 의료혁명의 모순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인을 위한 생산적 건강관

1416회 8월 25일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상구 한국생명운동본부 대표

각종 건강 관련 서적이거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건강정보를 접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웰빙열풍으로 이어지면서 먹거리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먹거리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웰빙을 추구하면서 잘먹고 오래 살 수 있을까. 90년대 초반 몸이 해로운 술과 담배는 끊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갖자는 '뉴스타트 운동'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는 어떤 것을 먹든지 유쾌하게 먹고 운동을 생활화할 것이며, 물이 보약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햇빛을 자주 쬐는 등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지침을 제시한다. 이는 음식 위주의 식생활이 아니라 생활 위주의 식생활을 하라는 것으로 '당신의 몸이 원하는 것만 먹으라'는 이 박사의 건강장수 비결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엔돌핀 이론'으로 건강 열풍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를 초빙하여 최근의 첨단의료 혁명, 곧 줄기세포 치료이론이나 유전자 치료법이 일반인들에게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적용되어 단순히 기술의학으로서만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의학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길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습관의 향상과 그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 美 웨인주립 의대 내과 전문의 수료
- 美 UCI(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의대 알려지 전문의 수료
- 美 캘리포니아 워터대학 교수 및 워터 자연요법 연구소 소장

• 美 NEW LIFE INSTITUTE 대표
• 美 Healing Love Ministry 대표
• 한국, 미국, 캐나다, 중국,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 브라질, 독일, 남아공 등 세계각지에서 강연
<저서> 이상구 박사의 잘 먹고 오래 사는 법 외

제140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6월 30일(목)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

변화혁신과 비전경영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



경영혁신이 왜 필요한가? 교보생명은 교육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보험회사로 시작했고, 최근에 고객만족경영 대상, 기업윤리대상을 수상했고, 온라인자동차보험에 진출했으며, 여러 가지 재단사업에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교보생명 사례를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교보생명을 모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보의 경영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내용을 보지 말고 틀로 봐 주면 아마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교보생명의 변화혁신 과정을 이야기하겠다. 변화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관리를 통해서 진화하는 것이다. 교보는 2000년에 변화혁신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성이 더 높아진 회사가 되는 것이었다. 즉, 생산성이 높아진 상태로 지속 성장 발전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다. 변화혁신을 시작하면 항상 초기에 갈등이나 슬럼프가 있다. 그래서 변화혁신을 안 할 때보다 생산성, 성과가 위축되는 단계가 온다. 그리고 변화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통곡의 계곡에 빠져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외과 의사가 병든 조직 여러 곳을 떼고 보니까 수술은 잘됐는데, 환자가 죽었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수술은 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를 빨리 회복시키는데 있다. 변화혁신도 과거의 모든 걸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빨리 바닥을 치고, 그 조직체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있다. 즉,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변화혁신은 판을 엮는 것이 아니라 고생산성 회사로 탈바꿈하는 것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판을 뒤집는 것 즉, 무조건 바꾸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개선해서 피를 덜 흘리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변화혁신 8단계, 이것은 존 코터가 쓴 <변화관리>라는 책에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중시했다. 처음에는 구심체를 형성하고 전파를 했는데, 이것이 위기상황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갔다. 그 후에 변화추진의 구심체가 형성되어야 한다. 조직원들 간에 회사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형성돼야 한다. 그래서 집행부가 형성되고 비전 전략이 만들어지고 전파되고 그것에 따라 실행될 수 있게끔 성과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고생산성 문화가 정착되고 고생산성 회사로 탈바꿈하는 것이 변화혁신의 궁극적인 종착역이다.

삼성그룹에서 예전에 변화를 추구하면서 외쳤던 구호가 있다. 변화할 때에는 "윗사람부터 해야 한다." "나부터 해야 한다."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 즉, 쉬운 것부터 해서 성공체험을 쌓아가서 더 큰 것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려면 집 앞 동산을 오르내리면서 체력을 쌓고,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가져서 좀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라는 말이다. 그래서 성공은 반드시 작은 성공이라도 자꾸 해 본 사람이 나중에 큰 성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론이다. 그리고 윗사람부터 해야 한다는 말은 조직에서 윗사람은 성과책임도 크고 주어진 권한도 크기 때문에 윗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성공은 작은 성공경험을 쌓아서 큰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동화를 보면 여러 갈래의 길에서 엘리스가 고양이에게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묻는다. 그러자 고양이는 네가 어디에 도착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어른사회에서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여행이라는 것은 항상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저녁 6시까지 부산에 가기 위해서는 5시까지 대구에 가 있고, 4시까지는 대전에 가 있어야 한다는 중간목표가 생긴다. 즉, 최종목적지가 정해져야 중간 목적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할 때는 가까운 곳부터 실천해가야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을 낭비하게 되고 경영층이 누구냐에 따라 조직이 가야 될 방향이 자꾸만 바뀌게 된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나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구하는 원대한 목표의 개념이다. 그래서 비전은 구체적이어서 하고 전 조직원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부터 실천해야 한다. 이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최고경영자 한 분의 머리에만 최종목적지가 있거나 최고경영자의 머릿속에는 최종목적지가 없고, 그 아래 실장님의 머릿속에만 최종목적지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다. 똑같은 내용이 전 직원에게 공유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보생명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원들만 전략을 알고 있고, 그것을 실천할 사원들의 머릿속에는 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보생명이 변화혁신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의 평범한 기업의 모습을 닮았었다. 그리고 선전이 40여 년간 경영하면서 1인 지시체제였고, 환경변화가 그리 빠르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비전은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IMF 이후로 디지털화, 정보화, 세계화라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그런 것들이 약점이 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 할 것도 많은데 선전이 편잡으시면 모든 결제가 늦어지고 회사가 같이 아프다가 선전이 다시 병을 회복하고 나오면 열심히 달려가는 식으로 한 분에 대해 의존하는 취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의 빅보스는 회장이 아니고 회장이 추구하는 그리고 모든 조직원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비전이 우리 회사의 빅보스이고, 회장보다 높은 게 우리 비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비전은 회사가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이다. 따라서 비전은 추상적인 외침도, 일방적인 지침도 될 수 없으며, 모든 구성원이 인정하고 공유하는 가치



여야 한다.

교보인의 비전 만들기 작업은 전 교보인의 참여 속에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비전의 필요성 인식이다. 전 사원 교육을 통해서 회사와 개인의 존재 이유를 이해하였고, 계층별 회장 간담회를 통해 비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두 번째는 개념의 이해 단계이다. 비전의 개념과 필요성,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한 VTR교재를 각 조직별로 시청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는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이다. 비전(안) 수립 토론회를 전사적으로 진행하여 전 임직원의 보다 심도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한 교보인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 연 376회에 걸친 비전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털고 핵심목적과 핵심가치에 대한 의견들이 집약되었으며, 전 교보인의 참여와 노력 속에 모아진 의견은 '교보인의 비전'으로 결실을 맺었다. 세계로 향하는 교보호의 좌표가 세워진 것이다. 그렇지만 비전이 세워졌다고 회사가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비전에 맞추어 각 부분별 미션을 세우고 모든 전략, 전술, 제도, 시스템, 조직설계, 규정 지침들을 비전과 일치시켜야 했다. 나아가 비전이 우리 전 조직원의 머리와 가슴에 내면화 되어 강도 높은 실천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핵심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조라는 개념이다. 왜 회사가 핵심가치를 필요로 하나 하면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의 의사결정 기준이 항상 조직원내에 공유되어 있으면 좋으나 그렇지 않으면 일 처리가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기준이 공유되어 있으면 현장조직에 자율권이 가고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되고 모든 계층별 관리자별로 관심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조직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시간이 단축된다. 그래서 경영의 일관된 방향성을 갖게 되고, 이 방향은 곧 회사의 비전을 향한다. 회사의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핵심목적 핵심가치를 어기지 않는 것이 윤리경영

그래서 교보생명은 십 년 뒤 미래모습 즉, 비전을 세웠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2005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 그리

고 절대로 핵심목적, 핵심가치에서 어긋나지 않고,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윤리경영의 큰 테두리이다. 윤리경영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즉, 회사의 핵심목적, 핵심가치를 어기지 않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전진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윤리경영의 개념이다. 우리는 2004년, 2007년, 2010년까지를 크게 역량강화기, 국내성장기, 해외진출기로 나누었다.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맵을 짜고 인재를 잘 키워서 몰입시키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일이 잘 되고 고객만족도, 브랜드 선호도가 올라가면 기업가치도 올라간다.



요즘은 사람이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고 인재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것은 비전과 전략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비전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를 사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난제였다. 또한 간부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일을 나누어서 배분하는 과정이 힘들었다. 결국 비전과 전략을 잘 짜서

각 세부조직 단위별로 목표를 분해하고 전략을 분해해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단위의 작은 업무로 나누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직구성원이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게 하고 책임자가 그 실천을 주도하게 한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브랜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성과관리 측정

우리가 성과를 잘 내고 있는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교보생명엔 보험회사로서 고객을 복돋아주고 격려하는 회사, 고객을 잘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회사로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TV광고도 계속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원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또는 공급하는 상품을 통해서 고객들이 교보생명이라는 회사가 실제로 그런 회사라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TV광고로 말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실재가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사실은 지역사회에 대한 윤리경영이기도 하고 브랜드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보는 2003년 말, 2004년 초부터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개선할 것인가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성과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다. 예전에 매출을 성과라고 했다면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이라는 과정이 빠지면 안 된다. 또 고객만족을 위해 개혁이 되어야 하고 프로세스 혁신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책임자를 뽑아서 학습 시켜야 한다.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며 시작이다. 그 업무의 책임자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일을 제대로 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야 계속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고객만족을 위한 개혁과 프로세스 혁신 사람관리가 성과를 좌우한다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될 일도 없고 고객이 만족할 일도 없고 이익이 올라갈 재간이 없다. 성과관리, 미래, 이익도 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관리의 핵심은 인재발굴, 인재육성, 인재도입, 몰입이다. 인재발굴은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말한다. 유통회사나 백화점에서 인재였던 사람을 교보생명 홍보실에 앉히면 인재가 되는가? 해당직무 즉, 교보생명 홍보팀장이라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따로 있다. 그래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도입하고 직무에 적합한 육성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관리는 직무 중심적인 관리가 되어야 한다.

얼마 전 신문에서 삼성생명 김두연 상무가 하신 이야기가 있다. 이분은 미국에서 보험을 하신 분인데 미국에는 고객 발굴자, 계약 체결자, 고객관리자가 모두 나누어져 있어서 전문가들이 모여 팀워크로 일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해 결국 각 사람의 몫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미국은 전문가들 집단이 공동 목표를 향해서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는데 본질이 있다.

이런 비유가 있다. 하늘을 나는 경기를 하면 독수리가 1등을 하고, 물에서 헤엄을 치는 경기를 하면 물개가 1등을 하고, 땅에서 달리는 경기를 하면 치타가 1등을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는 동물이 있다. 바로 오리이다. 오리는 하늘도 날 수 있고, 땅도 달릴 수 있고, 물에서도 헤엄칠 수 있다. 그러나 오리의 고민은 늘 독수리에게 지고, 물개에게 진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항상 오리는 지게 되어 있다. 시장을 생각하지 않는 오리는 잠깐이지만 푸드덕거리며 하늘을 날 수 있고, 속도가 느리지만 땅도 달릴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오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팀워크라는 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전문가들이 팀워크를 이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집단이 되는 것이다. 미국 팀과 혼자

뛰는 우리나라 설계사는 미국시장과 한국시장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당할 재간이 없다. 그래서 인재라는 것은 직무별 인재들이 그 분야에서 독수리, 물개, 치타로서 역할을 하고, 전문가로서 포진하여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변화혁신 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고 조직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한 변화혁신의 8단계에서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취임 후에 혁신이라는 것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요령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 얘기의 핵심이 변화혁신 8단계이다. 변화혁신의 각 8단계를 정확히 챙겨 밟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순서 없이 질서 없이 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변화혁신 과정에서 혼란, 저항은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빨리 극복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가 하는 것이 변화혁신의 성공을 결정한다. 그럼 왜 교보생명은 변화혁신을 시도하는가? 성공확률이 30~40%밖에 안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길게 봐서 망하기 때문이다. 2000년 교보생명이 변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망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지만 변화혁신을 하는 것이다. 변화관리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고생산성 조직으로 가려면 모든 조직구조, 프로세스, 시스템, 전략을 고성과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서 하나만 바꾸어도 다른 것들이 서로 연계된 문화라는 것이 저항을 일으킨다. 역지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면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

왜 이 시간에 비전 이야기를 하고 전략, 동기부여, 오리, 물개, 독수리 이야기를 하느냐? 그만큼 세상의 경쟁이 치열해 졌다는 것이다. 윗사람이 명령하면 아랫사람이 듣는 상명하복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이다. 신세대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발적인 목표, 자율재량권, 스스로 목표 달성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관리, 리더십이 필요해 졌다는 것이다. **人間**



사진 오경근 VERONICA CASS KOREA ACADEMY원장

천만 서울시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CEO 시장

이명박 서울시 시장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되 세계일류도시를 위한 문화정책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남은 임기 1년 동안 추구하는 시정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이 시장 취임 후 서울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청계천 복원과 서울숲 조성, 대중교통체계 개편, 뉴타운 사업 등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왔다. 이런 서울시의 변화는 지난 6월 초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이 시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4.4%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말단사원에서 대기업 회장까지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CEO형 시장'의 집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를 '문화의 해'로 선포하고 인프라 구축과 문화컨텐츠 산업기반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으로 서울이 세계 일류의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환경과 시민의식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퇴임 후 '문화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 소망으로 '문화도시 서울'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나 각종 대규모 사업의 성과와 서울의 미래모습 그리고 그의 진솔한 인생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이명박 시장

1941년 생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 서강대 명예경영학 박사 / 현대건설 사장 / 인천제철 사장, 회장 / 해외건설협회 업계대표 부회장 / 대한수영연맹 회장 / 대한알루미늄 사장, 회장 /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한국능률협회 부회장 / 세계수영연맹 집행위원 / 駐부탄왕국 명예총영사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원개발, 현대종합목재 회장 / 제14, 15대 국회의원 /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 아태환경NGO 한국본부 총재

시장님께서서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기업 현장에서 보내시고 92년 정
치에 입문해 2002년 서울시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착수하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정치나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 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 업무로 생각합니
다. 이와 함께 선진국, 세계일류도시가 되는데 꼭 필요한 '문화창달'
과 '서민복지'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특히, 저는 금년을 "문화의 해"로 선포하고,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
컨텐츠 산업의 기반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엔
문화도시 서울을 상징할만한 오페라하우스와 대중음악 전용콘서
트홀, 국악전용공연장, 난타전용극장 건립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됩
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문
화컨텐츠 산업의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특색있
는 소규모 문화공연장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프로그램 마련에도 소홀
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임기를 마치고 난 뒤 '문화시장'으로 불리고 싶은
희망이 있는데요.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의 문화를 꽃피우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시장님께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가 선정
한 'fDi 세계의 인물 대상'을 수상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수상소감과
이 상을 받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작년에는 청계천 복원으로, 금년에는 대중교통 개혁으로 상을 받았
었는데, 이번엔 또다시 내·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한 공로로 'fDi
2005 세계의 인물상'을 수상했습니다. 2003년 멕시코 폭스 대통령,
2004년 브라질 톨라 대통령이 수상한 상을 시장으로서 제가 처음
으로 수상하는 영광을 누린 것이죠. 이는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로 힘
이 되어주신 천만 서울시민과 4만 6천 서울시 공직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fDi'는 그 동안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서울 상암동 DMC 조
성사업을 환경·문화적 측면의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하고, 금

용체제 개편
과 외국인 투
자규제 완화
에 핵심 역할
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
인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어렵고 외국



▶ 6월 7일 열린 fDi 세계의 인물대상 시상식

자본 유치가 시급한 요즘, 이러한 수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해외자본
유치가 더욱 활성화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계
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말단사원에서 대기업 회장까지 시장님은 '샐러리맨의 신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기업 경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
된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현대건설 근무경험은 열사의 중동에서 동토의 시베리아까지 전세
계를 누비며 국제경영감각을 쌓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태
국 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공사, 바스라 아랍수리 조선소 공
사, 주베일 산업항 건설 등 기억에 남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건설사상 최초의 해외공사였던 태국 고속도로 건
설 당시 파타니 나라티왓 폭동사건은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중 하나
입니다. 당시 현대는 서독, 일본 등 16개국 29개사와 경합 끝에 공사
를 따냈으며,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현장의 말단 경리사원으로 근무
하고 있었죠. 그러나 경험없이 의욕으로 시작한 공사였기 때문에 장
비와 언어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던 가운데 한국 인부들
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저는 위협에도 불구
하고 끝내 금고를 내 주지 않았는데, 사실 금고에는 잔돈 몇 푼밖에
없었지만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
었고, 이러한 무용담이 신화로까지 증폭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폭동
사건보다는 원가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용이 방만하게 지출되
는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정주영 회장께 소신있게 말씀드렸던 것이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강남·강북의 지역적 격차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뉴타운 개발' 사업이 한창인데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예상하시는지요.

뉴타운 사업은 강남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택에 대한 안정적 공
급을 위해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
의 친환경적 도시구조를 만드는 데 기반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
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 등 3개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하면서 시작
된 '뉴타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강남북 균형발전의 대장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평 뉴타운은 지난해 12월 단지조성공사를 이미 시작했고, 길음
뉴타운은 지난 4월 일부 구역의 아파트 건설이 준공된 바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도 선도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계천변 주상
복합건물이 지난해 11월 기착공 되었으며, 3개 구역의 주택재개발 사
업도 금년내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울러 2003년
12월에 추가 지정된 제2기 뉴타운 12개 지구는 이태원지구를 제외하
고는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성과에 힘입어 뉴타운 사업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
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자체 예산만이 투입되고 있고, 현행 법령과 제
도아래에서는 뉴타운 정책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금년 초부터 특

별법 제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뉴타운 특별법'은 뉴타운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공시설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 우수학교 유치 등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중복 절차생략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정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뉴타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촉진되어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청계천 현장을 방문한 이명박시장



▶ 6월 1일 열린 청계천 통수식

지난 6월 장맛비로 청계천에 잉어떼가 몰려오는 등 청계천 복원 후 자연생태계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원사업 진행상황과 함께 완전 복원후의 모습을 설명해주시죠.

청계천 복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96%를 보이고 있고, 사실상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4~5개월 빠르게 진행된 것이죠. 이는 주변상인이나 시민 모두가 협조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준공식은 당초대로 10월 1일에 가질 계획입니다. 공사가 한번 완료되면 몇 백년 아니 그 이상 쓰여지기 때문에 하나 하나 실제상황에 맞춰 점검하고 보완해서 완벽한 청계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죠.

앞으로 청계천 복원이 마무리되면 문화, 생태, 환경, 도시발전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는 하천을 따라 동서간 녹지축이 형성되고, 이를 따라 새로운 바람길이 열리게 되어 도심의 열섬현상을 낮춰주는 물론 사람들의 심성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이자 도심의 문화 유적지와 청계천을 연결하는 국내·외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도시발전적 측면에서는 4대문안 도심이 과거의 서울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되찾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청계천 복원은 600년 고도로서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며, 나아가 21세기 도시간의 경쟁에서 서울을 동아시아의 경제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과열, 집값상승 등 우리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부동산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부동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전문성은 결여된 채 규제중심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나오는 부작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역할,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분담해서 힘을 합쳐야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주택 거래는 거주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이 강한데다 강남의 집값상승 배경에는 강북이나 강서지역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 생활환경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 추가 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 건설은 이런 관점에서 녹지·문화·교육시설 등 종합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낙후됐던 강북·강서지역의 주거환경을 강남 수준으로 끌어올려 시민들이 굳이 강남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과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의 뒷받침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권한강화와 관련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획일적 평형성을 지향하는 '하향평준화'가 아닌,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보완을 이루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향일류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장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은 'CEO형 시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각종 시정을 처리하는 강한 추진력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만의 시정철학이라고 할까요 인생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사람들은 제가 '영웅시대의 주인공', '샬리리맨의 신화를 이룬 최초의 CEO 시장'이라는 결과만 보고 실패를 모르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고통, 절망, 실패가 있는 것이죠. 특히 저는 아주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낮에는 과일장수로 일하면서 밤에는 야간상고를 다녔고, 대학을 갈 수 없어서 서울에 와서는 달동네에 살면서 일용직 노동자가 되기도 했습

니다. 그때는 정말 매일 매일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후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은 이렇게 힘들어도 언젠가는 나도 좋아질 것이라는 '캔디정신'으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늘 도전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매우 중요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최선을 다하면 하늘도 돕는다는 소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바쁘신 중에도 95년에 <신화는 없다>를 2002년에는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를 집필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시장님의 인생 역정은 큰 용기와 희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시대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기난한 시골소년이 현대건설에 입사해 12년 만인 35살에 사장이 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의 일에 애정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면 누구나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요즘의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이 해당하는 말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며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 나간다면 여러분 모두 영웅시대의 주역, 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 취업난이 문제인데요. 청년실업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급선무이긴 하지만 지방의 중소기업은 사람이 부족해요. 큰 기업에서의 경험도 좋지만 중소기업의 경험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높이, 전공과 관계없는 일이라도 활기차게 한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적성을 바꿀 줄 아는 긍정적인 생각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사회와 기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만을 찾다가 아무 것도 못하게 되는 것보다는 무슨 일이든 긍정적이고 도전 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소득 2만불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육성, 인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모토이기도 한 '인간개발'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의 핵심은 잘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믿고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믿고 일을 맡기고, 사업 성과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더욱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21세기는 훌륭한 인재 한 명이 10만명, 혹은 100만명 이상의 몫을 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인재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속에서, 혹은 대중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 갈고 닦여지는 것이며, 적재적소에서 훌륭히 자기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개발'은 스스로, 창의적으로 '일을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정을 돌보시느라 늘 바쁘게 활동하시는 시장님께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만의 건강법이나 취미활동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시죠.

저는 일을 즐기는 한편으로 취미생활 역시 철저히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해 내려면 아무래도 건강을 지켜야 하고, 이것은 운동과 취미생활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가만있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 집에서도 아침마다 런닝머신을 이용해 달리기를 하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탈 때도 만보계를 차고 다녀요. 주말에는 테니스를 정기적으로 치고 있죠. 취미로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져 대신 시 직원들이나 가족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서는 저희 연구원에 강사로 참여하시는 등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창조하고 활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생산활동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식 인력이 최대의 자산이자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사람이 경쟁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적자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개발연구원은 이미 30년 전부터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슬로건으로 인적자원 개발을 시작하셨으니 이는 한국사회발전의 초석을 놓은 크나큰 업적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끈임없는 열정으로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人間

10여년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섬기는 회사 될 터

김영관 거벽엔지니어링(주) 사장



돈 3600원을 손에 쥐고 무작정 상경 길에 올랐다. 하지만 아무 준비도 없었던지라 겨울에도 흠이불을 덮고 자야 했고, 매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극도의 빈곤 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건설회사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가지고 독립해 93년 (주)다산지오테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3년 뒤인 96년 거벽엔지니어링(주)로 상호를 변경한 거벽은 그라우팅 전문분야의 차수 및 지반보강 그라우팅, 제방·제방 그라우팅 그리고 토목 기초공사 분야에서 J.C.M(정확한 화학공법, Just Selected Chemical Grouting Method)공법과 약액교반장치 등 국내 유일의 기술을 보유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까지 특허등록을 마친 상태로 향후 성장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전문건설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라우팅 분야의 10여년 경험과 기술력

근래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인구증대 및 기간산업이 확충되는 추세 등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용지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제한된 국토면적만으로는 이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륙의 연약한 지반이나 임해단지 등 구조물의 기초지반으로서는 부적합한 지반을 개량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심층혼합처리공법 등 여러 가지 연약지반처리공법이 개발되고 있다. 더구나 도시의 고밀도화 현상으로 인해 협소한 용지 내에서 구조물을 신설, 증축해야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한 도심지 굴착 시 지반 변형문제, 인접구조물에 미치는

위해 영향, 포화지반의 지수처리(止水處理), 굴착 시 지반응기(Heaving)현상 등 이에 따른 대책방안 모색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게다가 도심지 공사에 있어서는 진동 및 소음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책방안으로서 최근 주입공법(注入工法, Grouting)이 갈수록 그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기초지반 개량 및 굴착 배면지반과 흙 댐(Earth Embankment)에서의 지수처리, 기존 구조물 기초지반의 언더피닝(Underpinning), 심지어는 암반 터널공사에 있어서 다양한 보조공법

오 늘날 일터를 잃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실직노동자의 힘겨운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IMF 이후 건설노동자 약 45만명을 포함하여 105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생겨났다. 물론 경기회복으로 실직자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하지만 지금도 약 7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의 쇠퇴와 건설노동자들의 험난한 삶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77년 흠어머니 슬하에서 가난의 고통을 견디며 성장하던 나는 단

으로서 많은 시공실적을 올리고 있다.

거벽은 바로 이러한 그라우팅 분야에서 10여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종완성품의 경제적, 질적향상은 물론 안정된 공사진행을 위하여 설계조건과 실제 시공결과를 연관시킨 자료를 축적하고 전문인력을 보유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실정을 감안할 때 주입공법 시공 업체들이 아직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식자체가 보조공법이라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주입공법을 통한 우수한 품질을 기대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많은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책임감과 함께 필요하며, 지반개량효과 평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은 계속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주도한 건설산업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은 우리나라 건설산업계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장중심의 생산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건설산업은 발주자, 설계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은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 그만큼 위험부담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본의 축적이 불충분했던 우리나라에서 풍부한 인적자본을 발판으로 손쉽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특히 건설산업은 생산, 고용, 부가가치효과가 타 산업에 비하여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이로 인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건설산업은 황금기를 거치는가 싶더니 부실공사의 범람과 업체난립으로 조금씩 쇠퇴해 독립산업으로서의 기반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과거 정부도 난립한 건설업체를 정비하고 건설업 면허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58년 건설업법을 제정하고 62년에는 건설부를 신설해 혼란한 건설산업을 정비하여 대부분의 산업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건설산업만은 IMF 이전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여러



1,2 JCM주입직업 모습, 3,4 거벽엔지니어링 공장전경, 5,6 천공작업현장, 7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김영관 사장과 그 직원들, 8 직원들과 함께하는 김영관 사장-직원단합대회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제도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건설한 건설업체들을 몰락으로 몰고 가는 'Paper Company(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로서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는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설경기 활성화정책이 필요한 시기

국내 총생산(GDP) 대비 건설산업 비중은 17%를 넘는다. 시멘트, 전자재, 가구, 목재, 장비 등의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때문에 건설산업은 내수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탈출의 핵심수단으로 사용돼 왔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또한 IMF 이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건설산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이제라도 건설산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절대부족으로 도로체증, 항만체증 등에 따른 물류비용 폭증, 수출·입업계 국제경쟁력 약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대처하는데 태만해 왔다. 하지만 이제라도 SOC예산을 대폭 늘려 건설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고용 증대효과와 경제적 기능을 감안하여야 하는 한편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미래와 건설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땀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 될 터

일터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집 잃은 아이 마냥 집을 찾고 있을 것이다. 국가와 회사의 전부는 사람이며 국가와 회

사를 움직이는 주체 또한 사람이다. 정부나 사용자도 노동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책임감 있고 풍요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뒤돌아보면 그들이 흘린 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발자취가 우리들의 삶을 여기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거벽은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체로서의 서비스 극대화에 매진하면서 사람의 소중함과 땀방울의 값어치를 자산으로 여겨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人間**

제133회 달성군 달성교양강좌 7월 14일(목)

21세기 한국농정의 방향

허상만 前 농림부 장관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개강해 현재 130회가 넘는 강연을 진행해오고 있는 "달성교양강좌"는 정보화·세계화·지방화시대 그리고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및 공직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폭넓은 교양을 익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달성교양강좌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교육제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자기계발은 물론 나아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달성교양강좌는 앞으로도 각계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도덕적 가치관과 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지자체특강에서는 지난 7월 14일 "21세기 한국농정의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33회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편집자 주 -



제133회 달성군 달성교양강좌 7월 14일(목)

앞으로 10년간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누구 하나 농촌이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의 현 상황은 어떤가.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10년 후 우리 농업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업도 변화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대

우리 농업이 기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국민이 요구하는 먹거리를 생산해 주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생산성 증대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상업 농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우리 농업이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농업의 전환점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농산물 개방이 되면서 정부는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 농어촌 개선자금 45조원, 농특세 15조원 등 그 동안 약 62조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달라졌느냐. 도시 소비자의 식탁 위에 언제든지 필요로 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농업기반과 생산성은 증대되었지만 이것이 소득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이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 GDP가 20조원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농촌인구도 계속 줄어들어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 7.5% 정도 되는 인구비율이 약 3.5% 정도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농촌인구도 130~140만명으로 더 줄어들겠죠. 이것은 농촌에 사람이 유입되고 떠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면 65세 이상의 고령농가 30만명 정도가 농업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이농현상 또한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농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부채문제인데 92년 가구당 평균 600만원 정도이던 것이 2003년에는 2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더욱이 기술농업을 할 수 있는 30~40대들의 부채가 4~5000만원 정도 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농촌의 교육입니다. 농촌 학교에 가 보면 시설도 괜찮고 교육내용도 도시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농촌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아이들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향후 10년의 계획은 농업의 마지막 기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10년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는 상업농으로서 기술농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농사짓는 사람보다도 기술이 앞서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적수준이 앞서야 합니다. 그래야 개방화 시대 우리 농업이 미국, 일본, 중국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0년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119조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과거 10년처럼 결과물이 농가부채로 남는다면 실패한 농정이 될 것입니다. 10년간 실패해 버리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고 봐요. 결국 농업정책은 정부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 여러분들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함께 손을 잡고 달성군의 농업을, 경북의 농업을, 대한민국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9조원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쌀 협상, DDA협상, FTA 확산 등 개방확대의 영향이 큼니다. WTO/DDA 농업협상, 쌀 협상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더라도 향후 시장개방 폭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는 거죠. 농업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개방을 안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 농업이 상업농 시대가 되면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먹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외국 시장에서 값비싸게 좋은 상품으로 수출될 수 있는 체제로 빨리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농촌문화가 생성돼야

그래서 우리 농업이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식품 안정성, 건강에 대한 욕구가 소비자들에게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비싸더라도 안전하다면 비싼 농산물을 먹겠다는 것이죠. 유통공사에서 2003년에 조사를 했는데, 농산물 선택 기준의 첫째가 안전성입니다. 그 다음이 신선도이고 마지막이 맛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건강을, 환경 친화적인 안전한 농산물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다시 우리 삶의 한 공간으로써 소위 휴식공간이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달성군에서도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문화나 향토문화, 현장체험 중심의 농촌관광, 농촌체험학습 등이 농촌활성화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골이나 지역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래문화, 근대문화를 소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경문화 속에서 파생된 생활소재와 전통과 역사 속에 창조된 우리만의 문화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런 문화로 돌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결국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야 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촌의 문화가 다시 정립돼야 합니다. 이것

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면 농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협상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년간 관세화를 유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서 2014년이면 40만톤 정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나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관세화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쌀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관세화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동안에 4%가 들어갔는데 일본이 6년만에 8%로 넘어갔고, 대만이 2년 차에 유예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관세화로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과거 10년까지 20년만에 7.96%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7.96%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이면 40만톤 넘게 들어올 것입니다.

쌀 수입 양이 배로 늘어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쌀 농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2003년까지 쌀 값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가격이 16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쌀 소득보전직불법안을 만들어 쌀값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산지쌀값이 하락할 경우 값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목표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3년 단위로 변경되는데 80kg 한 가마니에 17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17만원만 보장된다면 쌀 농사를 지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쌀 농사 면적을 보면 개인 호당 평균 3900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농사로는 안되죠. 적어도 2만평 이상 경작해야 도시 근로자들과 비슷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개혁필요성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업협동조합입니다. 정부가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농업인들과 농협에 계신 분들, 정치가들 모두 이야기합니다. 농협은 신용사업 즉, 은행업무와 경제사업을 가장 크게 하고 있어요. 경제사업은 농사짓는데 기술적인 지원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생산된 물건을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팔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신용사업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회장 한 분이 신용사업, 경제사업, 지도, 교육사업 등 모두 전권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신용대표, 경제대표, 축산대표, 전무이사대표 이 네 사람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게끔 해주고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대신 인사권은 그 대표들이 하자는 중앙회개혁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제도 개선

다음으로 농지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도시에 사는 사람이 달성군에 와서 농사는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사려고 하는 것은 불가

능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농지은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업농에게 임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도시인들도 농사를 짓는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농지은행이 위탁받아서 농사를 대신 지어주게 해서 도시인들도 얼마든지 농지를 살 수 있게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농지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하우스를 가지고 시설원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좋지 못해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쓰러질 위기인데 그 고비를 못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경제 등을 통해 쌀값에 넘어가 버리죠. 이런 농지를 앞으로 농지은행에서 전부 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년 후 재기를 하고 그 경지를 다시 사기 원한다면 농지은행에서 되판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농지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 농업이 다시 살아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수첩에 메모되어 있는데 그 중 꼭 챙겨야 할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개방 확대 등의 경쟁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유지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업농을 육성해야 합니다. 둘째,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젊은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고 농업의 국토환경 보전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식품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넷째, 농산물 유통혁신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규모화 전문화된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여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적 마케팅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유통혁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직불제 및 재해보험을 확충해야 합니다. 여섯째, 급속한 고령화와 낙후된 의료서비스 및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농촌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업인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면서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농촌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10년 후의 미래를 기대해봅니다. **人間**



허상만 前 장관

1943년 생 / 전남대 농학과 졸업 / 건국대 농학 석사 / 전남대 농학 박사 / 순천대 농과대 교수 / 순천 경실련 공동대표 / 순천시지역 정보센터(팜마텔)설립, 이사 / Green순천21협의회 상임의장 / 섬진강권 물연구소 설립, 이사 / 순천대 총장 / (사)나무를 심는 사람들 준비위원장 / 농림부 장관



인생이란 저주인가 축복인가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生.老.病.死

인간으로 태어나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곧 人生의 내용이며 피할 수 없는 과정이자 인간의 숙명이다.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참 어려워 보인다.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서남아시아에 일어났던 '쓰나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수십만을 헤아리고,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잃고 울부짖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인간상황... 지금 남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인생의 쓰나미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하여 벌어진 생지옥의 인간상황을 생생하게 보고 느꼈을 터인데도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나라들의 행동을 보고 인생을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9·11테러사건 발생 후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7.7지하철테러 사건은 불안한 인류사회의 미래를 예고해주고 있다.

일찍이 세계경영을 외치며 '대우왕국'을 건설하려고 동분서주했던 김우중 회장이 장기간의 외국 도피생활을 접고 자진 귀국하여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병원으로 실려 가는 처량한 모습을 보고 성공의 가도를 질주하고 있는 수많은 경영자나 기업가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불안하기 그 지없는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100년이 넘는 국내 최고의 기업역사로 명가로서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 왔던 두산그룹의 형제간 경영권 다툼의 내분을 보고 기업의 명가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들 있을까.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는 개혁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온 가운데 그렇게도 '가문의 자랑'을 추구해온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이 떠나없이 가지고 있는 불안한 과거사. 먼 과거는 제쳐놓고 일제 식민시대, 해방 이후의 역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민족 분열, 6·25전쟁과 남북분단, 박정희 정부와 함께 시작된 군사정부, YS, DJ 이후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문민화, 민주화의 정치발전 과정, 정치와 경제가 불륜의 관계 속에 질주해온 기적의 경제성장, 21세기의 정보화혁명시대를 맞아 윤리적이며 투명한 사회를 꿈꾸는 NGO와 네티즌들이 부르짖고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 기업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의 사회상,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문화는 유치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부조화 등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들의 불안한 과거사에 잠

복되어 있어 언제 폭발할지 모를 불안으로 21세기 인류사회에 찾아올 미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채 헤매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 아닐까.

수일 전부터 모든 언론 매체들을 매우고 있는 도청사건이 일으키고 있는 대선자금 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들이 워싱턴 외교가에 주미대사로 화려하게 등장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한국인들에게 자부심의 상징이 된 삼성그룹의 이미지를 뒤흔들어 놓고 있으니 이러한 변혁의 지진 현상에 안심하고 지내는 기업인이나 정치지도자들이 몇이나 될까?

인간의 삶은 분자적, 세포적 차원에서부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우주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이고 신비스러운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누구나나 生, 老, 病, 死의 생애를 통하여 창조자의 메시지를 전달해야할 사명을 지고 출생하여 생애를 마치게 된다. 부처님은 生, 老, 病, 死의 생애를 '苦海'라고 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고통이 침범해 올 때 스스로에게 "도대체 왜 이런 슬프고 괴로운 일이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자문하게 된다.

여기에서 잠시 머물러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 '행복'처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진주'의 생성과정을 보자. 모래와 같은 자극물이 조개 속의 생명체에 상처를 내고, 조개 속의 생명체들이 반응을 일으켜 그 반응의 지속적인 결과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자원이 상처 입은 부분으로 신속히 보내지고 마침내는 그 빛나는 진주로 성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아름다운 것'이란 '상처'와 같은 고통 없이는 불가능하며 바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불어닥친 역경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고통을 참아낸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과 고통들이 '진주'와 같은 보화로 바뀌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역경이란 이따금 가면을 쓰고 온 행복의 천사들임을 깨닫자.



무한한 잠재 능력을 지닌 인간은 진주알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은 고통을 넘으면서 행복을 만들어 내는 창조적 삶을 영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요컨대 인생이란 저주가 아니라 고통의 바다를 넘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 믿자. (人間)

기적의 부자체질 만들기

백승헌 (주)미래클커뮤니케이션 CEO

부자체질은 부자가 되는 기술과 에너지를 결합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자에 체질이라는 개념이 합성되어 있다. 체질은 육체와 정신을 의미하는데, 체(體)의 육체와 질(質)의 정신이 결합되어 있다.



부자체질은 부자의 기술과 체질에너지를 갖춰야

부자체질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부자체질이 따로 있습니까?" 부자체질은 분명히 따로 있다. 그러나 모든 부자체질이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부자체질은 대부분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그렇다. 부자체질 만들기는 누구나 조금만 노력을 하면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단순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만 부자체질이 되기는 참 쉽다. 단순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이 따른다. 자본과 능력, 인맥, 경험, 운 등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자체질은 두 가지 조건만을 갖추면 나머지는 만사형통이다. 그 두 가지 조건은 부자의 기술과 체질의 에너지이다. 기본적인 기술과 체질에너지만 강화한다면 누구나 부자체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술과 힘의 균형이 없으면 부자 될 수 없어

단순한 부자가 된다는 것과 부자체질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 단순한 부자에 대한 이론과 기술서는 지금껏 서점에 엄청나게 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고 수천부가 읽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는가? 대부분의 부자에 관한 책은 원론적으로는 내용이 유사하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지식을 전해주려 하고, 풍부한 경험과 사례로 부자가 되는 길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부자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인 체질은 빠져 있다. 육체의 에너지는 건강이라는 작은 부분으로 축소하고 여러 가지 편법만을 노하우인 것처럼 설명한다. 그나마 깊이 있는 책은 서양식 부자학이 대부분이다. 그러니, 부자가 되려고 아무리 책을 보아도 실제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이론과 사례, 편법 중심이라면 지식인은 모두 부자가 될 것이다.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시험

을 쳐서 합격을 하듯 부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잘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 중의 대부분이 부자에게 고용되거나 가난한 체질로 전락한 경우가 많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가장 큰 이유는 체질적 문제점 때문이다. 부자의 이론으로 중무장되어 있다고 해도 힘이 없을 때는 통하지 않는다. 원리적으로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 기술은 실전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 기술과 힘이 균형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최대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식과 사례, 편법 중심의 책들이 범람되다 보니, 현실적으로 부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부자체질은 부의 시스템관리에 철저

최근의 통계치로 보면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재벌들의 서열도 지각변동을 했다. 한 때의 재계 1위 현대와 재계 3위 대우가 축소 혹은 해체의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재계 2위 LG가 LG, GS, LS로 분할되면서 재계순위가 완전히 지각변동을 했다. 한 때의 영화가 한 세대 정도의 미래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 주변을 둘러보면, 부자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운이 좋아 한 순간 부자가 되더라도 체질화되지 않으면 지속은 어렵다. 육체적 에너지가 약화되어 정신적인 에너지가 약화되면서 파산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부자도 단순한 부자가 있고 부자체질이 따로 있는 것이다. 단순한 부자는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어딘지 육체와 정신이 불완전한 상태이다. 그러나 부자체질은 그렇지 않다. 부자체질은 부자의 기술과 체질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체질은 부의 시스템 관리에 철저한 특성이 있다. 엄격하게 관찰하면 부자체질은 어딘가 표시가 난다. 그들의 생활방식이 다르며 사고나 의식, 에너지가 다른 것이다. 노동자 같은 힘을 발휘하는 체력이 아니라,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마무리 짓는 파워가 대단한 것이다. 부자의 기술 이외에 강력한 에너지체계가 그들을 부자체질이 되게 하는 것이다.

육체적 에너지는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

부자체질론 자체가 일반적인 부자학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부자학에 관한 서적과 가르침은 습관을 바꾸고 독서를 하라는 식의 정신적 자세를 강조한다. 그러나 사실은 육체적 에너지가 정신적 에너지를 형성한다. 변화하려면 우선 육체적인 에너지 패턴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변화는 육체를 통해서 시작된다. 육체적 에

너지는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인 것이다. 필자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근 20년을 매달렸다. 그 결과 정신적 자세라는 모호한 개념이 실제적으로는 육체적 에너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부자와 체질의 관계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다. 물질 에너지는 물리적 작용을 하면 육체적 힘이 되고 화학적 작용을 하면 정신적 힘이 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전통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밝힌 부자체질론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이 나온 시점인 2천년 전부터 강조되었던 심신일체의 원리가 재조명된 것이다. 한의학적으로는 육체적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의 관계는 명확하게 상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육체적 상태가 감정과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간이 약화되면 신경질이 나고, 비장이 약화되면 잡념과 망상이 많아지며, 신장이 나빠지면 비관을 하게 된다는 것 등이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에너지는 정신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부자체질의 필수적 요소인 것이다. 부자체질 만들기는 부자의 기술보다 체질에너지를 더 우선 순위에 둔다. 부자의 기술은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면 충분하다. 그러나 체질에너지는 대부분 약화되어 있는 상태가 많다.

7가지 체질에너지인 두뇌의 목표, 폐의 판단력, 간의 의지력, 심장의 열정, 비장의 활동력, 신장의 자금력, 성호르몬의 친화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그 바탕 위에서 부자의 기술이 통하는 것이다. 먼저 체질에너지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부자의 기술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자체질은 단순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에너지와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누구나 진정으로 부자체질이 되고자 한다면, 체질에너지를 끊임없이 강화하여 자신의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면 반드시 기적과 같은 부자체질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다.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Miracle)인데, 미르(Mir)는 용으로, 자신의 내면에 깃든 용을 일깨워 현실적 성취로 승전한다면 누구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人間**



백승헌 대표

1958년 생 / 부산대 철학과 졸업 / 성균관대 대학원 석사 / American Liberty University 한의학 석·박사 / 청주대, 성균관대 '28체질건강법' 강의 / 한방역학 강의 / KBS, MBC, SBS TV 다수 출연 및 라디오, 신문, 잡지 등 칼럼 연재 / 28체질닷컴(<http://28chejil.com>) 부자체질 컨설턴트

회원&연구원 소식

■ 회원소식

• **법무법인 우현 황석희 고문**은 지난 7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상임위원 위촉에 이어서 7월 6일 한국전력공사 비상임감사로 임명되었다.

• **신용보증기금**은 7월 18일자로 **배영식 이사장**의 퇴임과 함께 **김규복 이사장**이 새로 취임하였다.

• **기업은행(행장 강권석)**은 지난해 9월 출시해 관심을 모았던 '고구려 지킴이 통장'의 판매 수익금 5000 만원을 '월간중앙'이 후원하는 고구려 역사탐방행사에 써달라고 흥사단에 기부하였다.



• **화장품업계 대표적 문화마케팅 기업인 (주)코리아나 화장품 (대표이사 사장 박찬원, 회장 유상옥)**이 Culture Magazine <The Colour(더 컬러)>를 7월 창간하였다. <더 컬러>는 격월간으로 발행되며, 새롭고 색깔 있는 문화를 추구하는 코리아나 VIP 고객을 비롯한 공공장소에 비치되며, 일반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 **해청미술관(손경식 원장)**에서는 7월 1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 2005년 서양화 초대 한국구상회화전이 개최되고 있다. (문의 : 02-336-5885)

• **일양약품(회장 정도연)**이 기존 비타민 음료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탄산이 함유된 상쾌한 비타민 음료 '일양 비타 쿨'을 신발매 하였다. 일양약품이 새롭게 출시한 탄산 비타민 음료 '일양 비타 쿨'은 원활한 생체리듬을 유지시켜 주는 비타민 음료로 남녀노소 누구나 비타민 충족과 함께 기능과,



맛, 상쾌한 탄산까지 함유되어 스포츠를 즐기는 젊은 세대와 레저 활동이 활발한 중·장년층을 위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삼화페인트(대표이사 윤석영)**는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열린경영연구원이 주관한 "2005 친환경 경영대상"에서 기업부문(제조) 대상을 수상하였다. 친환경경영대상은 생산 및 서비스 활동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친환경경영체제를 모범적으로 구



축 및 운영하는 기업(기관)과 친환경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글로벌스탠다드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상이다.

• **KCTC(회장 신태범)**는 지난 6월 현대산업개발, 브이그사, 고려해운, ZIM, 국제통운, 한국도로 인프라투자, 국민은행등 8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부산신항만 2~3단계 컨테이너터미널(4선석)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부산신항만 2~3단계 건설공사는 오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만급 컨테이너부두 4선석(안벽길이 1.4km)을 민간투자 형식으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00억원이다.

• **제일화재(대표이사 김우환)**는 지난 7월 12일 국민은행과 방카슈랑스 업무 제휴를 맺고, 7월 20일부터 국민은행 전국영업점에서 방카슈랑스 전용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로 제일화재는 장기저축상품인 '퍼스트크래스골프보험' 및 기업체를 타깃으로 한 일반보험 특화상품인 '기업사랑 종합보험'을 시판한 후, 방카슈랑스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 신규회원



류선환 순환기획인쇄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3-3
- 전 화 : 02-2264-1088
- 팩 스 : 02-2264-1085
- 업 종 : 출판, 인쇄업
- 추천인 : 우창욱 동명인쇄 사장



박종백 지멘스(주) 상무

- 주 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6
아세아 타워 빌딩 10층
- 전 화 : 02-3450-7602
- 팩 스 : 02-3450-7698
- 업 종 : 도소매업, 의료기기 생산
- 이메일 : jbpark@ieee.org
- 추천인 : 언론매체를 통해서



신재철 디지솔루션(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8
LG 트윈텔 1-1311
- 전 화 : 02-569-5293
- 팩 스 : 02-406-5298
- 업 종 : 서비스, 경영자문
- 이메일 : ccshin47@chol.com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최영대 홀트아동복지회(주) 사무국장

- 주 소 : 서울 마포구 합정동 382-14
- 전 화 : 02-322-8141
- 팩 스 : 02-334-5440
- 업 종 : 사회사업, 상담, 입양, 장애인수용,
교육등
- 이메일 : cyd@holt.or.kr
- 추천인 : 이종원 다영산업개발 사장



최원표 상해역선국제무역공사 총경리

- 주 소 : 중국 상해시 세계대로
- 전 화 : 00286-1330-185-1859
- 업 종 : 무역업
- 이메일 : cm21yohan@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gcn.com
- 추천인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추천해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무실 이전 및 변경안내

·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배경운 사장)**는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주소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81번지
대표전화 : 02-810-8000

· **영동농장(김용복 회장)**은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주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162-7 영빌딩 3층
대표전화 : 02-545-2219

· **실버텍스(정만우 회장)**는 다음과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67번지 우찬빌딩 6~7층
대표전화 : (02)572-8055

■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유상옥 /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8월 정기모임인 217차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7월 정기모임은 골프와 미술관람으로 진행되었으며, 골프시상품은 유상옥 회장께서 특별 화장품세트, 오원석 회장께서 상주 꽃감 특상품 10세트를 스폰해 주셔서 더욱더 즐겁고 풍성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8월 모임은 가평군 상면 축령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취옹예술관을 관람하고 1박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8월 29일 5시 도착 (1박)
- 장 소 : 가평 취옹예술관 (TEL. 031-585-8649)

· **YCF(회장 김상래 / 성도GL 사장)** 7월 정기모임은 18일(월) 청담동 갤러리드림에서 '화랑관례와 비즈니스 매너'란 주제로 갤러리 드림의 이성수 대표께서 강연을 하셨습니다. 갤러리의 작품도

감상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8월 모임은 비정기 모임의 문화행사로 준비될 계획이며 세부사항은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연구원 소식

■ 행사소식

• 최혜영 프로와 함께하는 인간개발연구원 골프포럼 후기

7월 14일(목)에 있었던 최혜영 프로와 함께하는 골프포럼은 총 40여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위에서 아래로 : 골프포럼에서 최혜영프로의 원포인트레슨 장면, 골프포럼시상식-서석홍 회원 수상장면, 골프포럼시상식-송재문 회장 수상, 골프포럼후-골프로 인한 근육손상등에 대한 강연장면

는 최혜영 프로의 원포인트 레슨과 다양하고 푸짐한 시상상품으로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행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간개발연구원 참가회원 중 서석홍 동선합섬 회장이 대파상을 수상하여 300만원 상당의 골프클럽을 부상으로 받았으며, 김정철 정림건축 회장, 송재문 에스엔케이폴리텍(주) 회장,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윤영상 다산(주) 회장 등이 함께 수상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만찬에서는 골프 라운딩 후 올 수 있는 근육손상 등에 따른 '골프손상 및 재활'이라는 주제의 강연과 색소폰, 클라리넷 연주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 Millennium Leaders Forum(밀레니엄 리더스포럼) 8월 31일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8월에 개최 예정되었던 밀레니엄 리더스 포럼은 최근 미국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된 힐러리 상원의원을 주체발표로 하여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방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최근 벌어진 영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한 보안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3일간의 방한 일정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번 행사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참가를 계획하셨던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2005년 상반기 결산과 함께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 베스트질문 회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베스트 질문자로 뽑히신 이원기(원풍물산 회장), 심갑보(삼익 LMS(주) 부회장), 이동희(오성연구소 이사장) 회원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결과 베스트질문 회원으로 선정되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습니다.

〈선정이유〉

- 질문의 핵심만 짧게 설명
- 강의한 내용과 관련된 질문
- 주제 내 대중성 있는 질문
- 감사와 참가자에 대한 예절을 갖춘 질문
- 감사를 칭찬하고 박수를 유도하여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기업은행	강권석 은행장	(8월 1일)
썬데일러	우덕성 사장	(8월 1일)
비즈컴	조영성 사장	(8월 1일)
농업법인 조인주식회사	한재권 사장	(8월 2일)
우성마리타임(주)	차수웅 회장	(8월 7일)
영우통상(주)	양대길 회장	(8월 14일)
(주)수성	김정배 사장	(8월 15일)
농협중앙회	정대근 회장	(8월 15일)
Big Dream&Success	공한수 사장	(8월 27일)

■ 지자체소식

•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



동아일보와 한국공공
자치연구원이 공동으
로 주관하는 한국지
방자치경영대상 시상
식이 지방공무원과
지역초청인사 1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7월 18일(월)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 시상식에서는 본원과 함께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경남 하동군(군수 조유행)이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고창군(군수 이강수)이 문화관광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한편 시상식에 앞서 열린 '지방자치 10주년 기념세미나'에서는 김흥식 전남 장성군수가 "지방자치경영의 성공비결"이라는 주제로 성공강연을 해 지난 95년부터 본원과 진행하고 있는 장성아카데미의 결실을 참가자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 대전 서구청 『사람이자치대학』 수료식

사람이자치대학은 국내 최고의 석학을 초청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선진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구청에서는 박상천 서울대 교수의 "한국의 백세인과 장수벨트"라는 16회 교육과 함께 3기 수료식이 있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장만기 본원 회장도 참석하여 교육이수자들에게 수료장을 수여하였다.

• 제11회 늘푸른바다축제

동해시는 7월 30일~8월 5일까지 한여름 싱그러운 바다향기가 물씬 나는 망상해수욕장에서 제11회 늘푸른 바다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노래와 춤, 영화 공연이 어우러지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피서지의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30일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청소년 국악제(7월31일), 모래조각전(8월1일), 해변가요제(8월2일), 해변 열린음악회(8월9일) 등 12개의 각종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

■ 베스트 질문 10계명 선정 취지

안녕하세요?

2005년 상반기 베스트 질문상 선정에 회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조찬 경영자연구회의 백미는 회원님들의 격조 높은 질문시간이라고 합니다. 날카로우면서도 부드러운 질문은 예술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받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문의 응답 내용을 중심으로 베스트 질문을 위한 10계명을 정리해 보았사오니 질문하실 때 많은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 원장 양병무 올림

◇ 베스트 질문 10계명 ◇

1. 강의 내용과 관련된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한다.
2. 강사의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질문한다.
3. 참가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질문한다.
4.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부드럽게 질문한다.
5. 다양한 참여를 위해 질문의 기회를 독점하지 않는다.
6. 질문자가 지식나열과 자기과시를 하지 않는다.
7. 질문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발언은 삼가 한다.
8. 발언 요지를 메모해서 질문한다.
9. 어떤 질문도 2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0. 종료시간 10분전에는 질문하지 않는다

한국인간개발연구원 Global Koreans Network 남미문화투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 상파울로 - 이과수폭포를 구경하는 사람들

최근 세계경제의 화두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리상으로 가깝고 사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국과 인도에 주목한 반면 브라질 등 남미는 우리기업과의 연계가 그만큼 적었습니다.

최근 국회 통상분과위의 6~8개 분과위가 중남미(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국가를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무역관련(수입, 수출)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제조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등 대외통상확대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남미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현지시장을 방문하여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남미국가들을 방문하여 천연 자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함을 느낄 수 있는 매력 있는 문화투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남미투어 일정에서는 한인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남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상거래관행, 법, 고객의 욕구 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남미국가 투어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행사일정과 교류예정인 한인회 정보를 간단하게 요약하여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휴식과 관광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문날자가 페루 정부와의 협력사업구상과 관련하여 방문일정이 아래와 같이 앞당겨진 관계로 안내를 드리오니 이미 신청해주신 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❶ 행사 개요 ❶

♣ 방문일정 : 2005년 8월 24일 ~ 9월4일 (11박12일)

♣ 참가비 : ₩ 5,990,000 (항공료 등 교통비, 숙박비, 교민회간담회 참가비 일체 포함)

♣ 입금계좌 : 국민은행 815-01-0421-966 예금주 : 아주관광

♣ 신청기한 : 2005년 8월 17일 ※미국비자가 없는 경우 8월 10일까지 신청마감

♣ 문의 : 인간개발연구원 정성숙(Tel.2203-3500) / 아주관광 (Tel.02-777-5051)

※ 참가신청서와 여권, 미국비자사본을 함께 FAX(02-2203-197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비자가 없으신 신청자께서는 아래 서류를 구비하시어 아주관광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아주관광 문흥교 부장 02-777-5051)

♣ 미국비자구비서류(사업자) : 여권 (유효기간 반드시 6개월 이상), 사진 1매(가로X세로, 5X5),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사실 증명원, 최근 12개월 부가가치과세 표준 증명원(세무서 발행),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회사거래통장 (거래내역 복사 및 잔고증명서)

● 행사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상 세 일 정	비 고
제1일 8/24	인 천	KE017	14:00	인천국제공항 3층 카운터 B-C 미팅	석 : 한 식
			15:00	인천국제공항출발(대한항공)	
	LA	MX901	10:00	LA공항 도착.	
			12:40	연결 항공편으로 멕시코 시티로 출발	
	멕시코시티		18:15	멕시코 시티 도착, 가이드 미팅 후 호텔 투숙 휴식 호텔 : MELIA MEXICO 호텔	
제2일 8/25	멕시코시티	전용버스	07:30	호텔 조식 후, 고대도시 테오티와칸, 해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사자의 거리, 마지막 고대 문명인 아즈텍 문명등 시찰	조 : 호텔식 중 : 뷔페식 석 : 기내식
			19:40	멕시코시티 지역 한인회 방문 및 간담회후 공항 이동. 멕시코 시티 출발 호텔 : 기내박	
제3일 8/26	상파울로	전용버스	06:50	상파울로 도착, 가이드 미팅후 호텔체크 인 오전 휴식, 시내관광-이파랑가 공원,독립기념관, 상파울로 대학 등 간단한 시찰공식 일정	조 : 기내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공식 일정 상파울로 한인회 방문 및 간담회 호텔로 귀환 휴식 호텔 : CROWNE PLAZA 호텔	
제4일 8/27	상 파 울 로	RG2251	08:0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조 : 호텔식 중 : 도시락 석 : 현지식
			12:50	상파울로 출발	
	이과수		14:25	이과수 공항 도착 이과수 폭포시찰(브라질 측면후 호텔로 이동 및 휴식 호텔 : BOURBON CATARATAS호텔	
제5일 8/28	이과수	전용버스	08:00	호텔 조식 후 아르헨티나측 이과수 폭포(악마의 숨통)관광 후, 공항으로 이동	조 : 호텔식 중 : 도시락 석 : 한 식
			13:45	이과수 출발	
	부에노스아 레이스	A4 6127	15:35	부에노스 아이레스 도착-공식일정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회 방문 및 간담회. 호텔로 귀환 휴식 호텔 : INTER-CONTINENTAL 호텔	
제6일 8/29	부에노스아 레이스	RG8615	07:0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부에노스아이레스 출발	조 : 기내식 중 : 뷔페식 석 : 현지식
			10:00	리오 공항 도착, 가이드 미팅, 중식 후 슈카로프산 케이블카 등정후 리오경관 및 코르코바도 언덕의 예수상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 INTER-CONTINENTAL 호텔	
제7일 8/30	리 오	RG8930	07:30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조 : 기내식 중 : 한 식 석 : 한 식
			12:45	리오 출발 리마 도착 - 공식일정 리마 지역 한인회 방문 및 간담회 석식 후 호텔로 귀환 휴식, 호텔 : SHERATON 호텔	
제8일 8/31	리 마	전용차량	09:40	호텔 조식 후, 공항 이동 리마 출발 푸스코 도착 (푸스코는 고산 지대이므로 격렬한 운동이나 음주는 피하시게 좋습니다)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호텔식
			10:50	식사이와만, 켄코, 탐보마치어, 푸카푸카라, 산토도밍고 성당등 임카 유적지 시찰후 우루밤바로 이동. 호텔로 귀환 석식 후 휴식 호텔 : BEAT WESTERN 호텔	
제9일 9/01	우 루 밤 바 마추피추 푸스코	관광열차 전용차량	전 일	호텔 조식 후 마추비추로 이동 / 잃어버린 공중 도시 마추비추 시찰, 푸스코로 귀환 석식 후 호텔투숙 호텔 : NOVOTEL 호텔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제10일 9/02	푸스코 리 마	LP 022 전용차량	11:20	호텔 조식 후 공항이동.	조 : 호텔식 중 : 한 식 석 : 한 식
			12:40	푸스코 출발	
			오 후	리마 대통령궁, 구시가지, 신시가지, 미라플로레스 지역, 황금 박물관등 시내관광, 석식 후 공항 이동 호텔 : 기내박	
제11일 9/03	리 마	LA 600 KE 018	01:05	리마 출발	
			07:40	LA 도착	
			12:30	LA 출발	
제12일 9/04	인 천		17:10	인천 국제 공항 도착.	

◎ 한인회 회장 약력 및 교민현황, 국내투자기업LIST

• 멕시코

성명 및 이력사항	이 광 석 회장 1960년생 단국대학교 졸업, 멕시 코 국립대학 석,박사 보험 및 의료업
교민현황	약 1,000~2000명
한국진출기업	가전제품 :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원사수입 : 효성 무역 : 삼성, 대우, SK, 금호 타이어, 한국타이 어, 한진해운 등

• 브라질

성명 및 이력사항	김 칠 언 회장 1944년 서울생 경북고등학교 졸 1964년 브라질 이민 / FGV 대학 경영학과 졸 1999년 한국인 학교 설립 2004년 한인회 회장
교민현황	약 50250명
한국진출기업	LG, SK, 효성, 대우, 기 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메디슨, 범양 상선, 수출입은행, 외환 은행, 포항제철, 한국타 이어, 현대큐리텔 등

• 아르헨티나

성명 및 이력사항	이 영 수 회장 1961년생 서울생 현 변호사
교민현황	약 20,000명
한국진출기업	삼성, LG, 대우, 한성외 10여개의 수산회사, 동 원탄좌, 한미 경제인 연 합회

• 페루

성명 및 이력사항	석 원 용 회장 1960년생 1978년 마산고졸 1988년 볼리비아 이주 1991년2월 페루 이주
교민현황	약 900명
한국진출기업	현대, 기아자동차, 삼성 전자, LG전자, SK가스

백만불의 성공계획 5단계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최근 들어 성공에 관한 지침서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저마다 개성 있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 아마 어떤 책이든 저자가 바라는 성공의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나 실제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지 않다.

왜 그럴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 순간에는 공감하지만 읽고 난 후에 실천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작심삼일이 되고 만다. 성공은 좋은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태도와 습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사실 성공의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폴 마이어, 스티븐 코비, 데일 카네기, 존 맥스웰, 켄 블랜차드, 브라이언 트레이시 등은 현재 미국과 세계를 휩쓸고 있는 리더십과 성공학의 대가들이다. 이들이 발간한 책들이 한국에도 대부분 번역되어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 교육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 역시 좋은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여기서는 LMI리더십의 창시자인 폴 마이어 회장이 제시하는 백만불의 성공계획 5단계를 소개한다.

첫째, 생각을 선명하게 하라.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생각이 변하면 결국에는 운명이 변한다는 뜻이니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생각이 애매하면 변화를 불러올 수 없다. 생각이 선명할 때 변화가 뒤따른다. 精神一到何事不成.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면 어찌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이를 위해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생각이 선명해진다.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달성시한을 정하라.

선명한 생각은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계획서와 연계되어 글로 써어져야 한다. 글로 쓰는 것 자체가 생각을 구체화시키며 구체화된 생각은 행동의 동기가 된다. 자신의 목표를 종이 위에 쓰는 단순한 동작이 행동하겠다는 서약이 된다. 여기에는 달성시한이 시간별, 일별, 월별로 정해지면 긴장감을 갖고 집중적으로 일하게 된다. 목표가 분명하고 달성시한이 정해져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쁜 사람은 결코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시간이 없다. 성공은 '자신의 가치 있는 목표를 미리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라는 정의를 명심하면서 목표를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달성시한을 정하면 성공은 궤도 위를 달려갈 수 있다.

셋째, 마음에 그린 인생의 꿈에 대해 진지한 열망을 불태워라.

아무리 자신의 목표가 가치 있고 그 계획이 실천 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열망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열망은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행동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열정이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없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처방처럼 자기들의 노력을 '하루 최저 필수량'만을 투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은 최소량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망은 내면으로부터 생겨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열망을 일으키고 북돋우고 통제할 수 있다. 불타는 욕구(burning desire)야말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

는 성공의식을 심어주고 그 성공의식은 다시 성공습관을 강화시켜 준다.

넷째, 자기가 가진 훌륭한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으로 흐르기 쉽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온다.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면 자신감이 없어져 창조적인 에너지를 창출할 수가 없다. 자신감을 가지려면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어야 한다. 발명왕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2만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한다. 기자가 실패할 때마다 느낌이 어떠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전혀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 시행착오는 단지 꺾어야 할 과정이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故 정주영 회장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강조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시련과 시행착오는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믿어야 자신감이 생겨난다.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어떠한 난관도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장애와 비판 그리고 주위의 환경에 현혹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켜라.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심사숙고한 끝에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강철같은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 인생을 향해하는 과정에서 좋은 날씨만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

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검푸른 파도가 넘실대기 마련이다. 또 주위 사람들의 한 마디가 마음의 갈등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 때마다 현재 자기가 가는 방향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자문자답해 보자.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사람도 자기 자신이다. 처칠 수상은 모교 졸업식에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Never never give up.)"고 강조했다. 실패한 사람들은 중도에 그만 둔 사람들이다. 그것도 성공하기 바로 직전에. 보통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르면 보통의 성공밖에 거둘 수 없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오는 장엄한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행렬에 용기 있게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코 현재 이상의 높이로 올라갈 수가 없는 법이다.

모든 길에는 반드시 지름길이 있다. 성공 역시 마찬가지다. 성공의 5단계를 따라가면 성공이 친구처럼 다정하게 다가온다.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총론과 각론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생각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총론이라면 나머지 네 가지 요소는 각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말만 무성하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NATO(no action talking only)족이라고 한다. 나토족은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성공의 5대 요소를 따라 단계별로 실천하며 나아가면 성공은 우리 가까이 다가온다. 백만불의 성공 계획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주위 사람들 과도 공유함으로써 성공의 기쁨과 환희를 함께 맛보도록 노력하자. **人間**





안중근과 안창호¹⁾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前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작년부터 어떤 계기에 의해, 나는 안중근(1879~1910)과 안창호(1878~1938)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다. 여러 문헌을 섭렵하면서 이분들과 그 시대에 관해, 나름대로 좀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있으나 참으로 좋은 공부를 했다고 기뻐하고 있다.

안중근은 32세의 젊은 나이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는 지금도 '의사'라 불리고 있지만, 단순한 의사는 아니었다. 그는 이순신에 못지 않은 문무겸전(文武兼全)의 영웅이었다. 그는 일본 최고의 정치가인 이등학문(伊藤博文)과 목숨을 맞바꾸었지만, 그는 이등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략(智略)과 용기와 비전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가 이등을 처단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잃은 것은 호랑이가 살팽이를 잡다가 희생된 형국이었다. 아깝고 가슴아픈 일이다. 민족의 영웅답게, 그에게는 지금도 많은 신화가 뒤따르고 있다.

안창호와 안중근은 다 같이 순흥 안씨라는 점을 빼고는 거의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안창호는 안중근과 같은 개세(蓋世)의 담략(膽略)과 순발력을 보인 적은 없다. 그러나 그는 탁월한 지도자요, 사상가였다. 그는 학교다운 학교에 다닌 적이 없고, 안중근과 같은 수준의 한문(漢文) 실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소시 때 기독교에 귀의한 적이 있으나 일찍이 성경의 어구를 인용한 일은 없었다. 그의 탁월한 식년과 신념은 모두 스스로 터득한 것이었다.

안창호는 한국의 독립은 한국사람들이 보다 정직하고 도덕적 수양이 향상돼야 이루어질 수 있고, 독립운동도 점진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무실역행(務實力行)과 충성용맹(忠誠勇猛)을 수양의 근본으로 삼고 이 덕목을 갖춘 인물을 기르기 위하여 흥사단(興士團)을 조직하고 인격수양운동을 전개했다. 나라를 잃은 것이나 다시 찾는 것이나 국민 각자가 다 자기의 책임이라고 보고 자기수양에 힘써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문답형식으로 흥사단원과의 면접을 실시한 기록을 보면, 그의 교육법은 소크라테스의 방법과 흡사했고, 정교한 논리는 맹자(孟子)의 그것을 닮은 점이 있다. 다만 한 가지 인정돼야 할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의 '수양'과 '단결'은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가능했겠지만 일제하의 한반도에서는 좋은 결실을 맺기가 지극히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1920년대 초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다가 끝내는 어처구니없는 반민족행위로 생애를 마친 이광수(李光洙)의 행적은, 이광수 자신의 마음은 고사하고 일제시대 때의 조선사람의 수양이나 단결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시사하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이광수의 행적을 보고 안창호를 평할 수는 없다. 61세 되던 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신병으로 서울대학병원에 이송되어, "목인(睦仁)아!²⁾ 너는 많은 죄를 지었구나!"라고 외치고 숨을 거둘 때까지, 안창호는 애국의 정렬과 일관된 심념을 견지했다.

안중근은 문무겸전의 영웅, 안창호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철인(哲人)이었다.

1. 이 글에서는 경어를 쓰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경의(敬意)를 잃은 것은 전혀 아니다.
2. 목인은 일본 명치천황의 이름.

삼립

어머니의 손맛 그 느낌 그대로
시원한 국물맛과 가늘고 쫄깃한 면발

노면 가늘세 참 모기



“그 맛만 들면 되겠다”



멸치맛



복어맛